



아틀리에 앙투안 디스커버리 워크숍을 위해 온라인 예약을 시작하는 예저 르쿨트르

시계 애호가와 신규 고객을 비롯한 모두가 예저 르쿨트르 매뉴팩처에서 파인 워치메이킹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첫 번째 아틀리에 앙투안 디스커버리 워크숍을 5 월 5 일에 선보이며, 전용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플랫폼에서는 디스커버리 워크숍의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영어와 프랑스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날짜, 시간 및 기타 정보를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공합니다.

디스커버리 워크숍의 첫 번째 시리즈는 150 년에 이르는 예저 르쿨트르의 차임 시계 역사를 기리기 위해 The Sound Maker 테마를 다룰 예정입니다. 강사와 기술 전문가가 주최하고 최대 8 명이 참석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워크숍은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이론적인 교육과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3 시간짜리 클래스에서 참가자들은 시계가 ‘똑딱’ 거리며 가는 이유, 소리로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 미닛 리피터가 차임벨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리피터와 그랑 소네리의 차이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랑 메종의 창립자, 앙투안 르쿨트르의 이름에서 따온 아틀리에 앙투안의 허브는 스위스 르 상티에에 위치한 유서 깊은 매뉴팩처 빌딩의 내부를 새롭게 개발한 공간입니다.

2021 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약 플랫폼에서 테마 매뉴팩처를 방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워크숍은 테마 매뉴팩처 방문을 위한 옵션을 제공하며, 매뉴팩처 방문은 그랑 메종의 역사와 워치메이킹 단계, 혁신과 발명 그리고 독창성과 수공예와 같이 예저 르쿨트르의 전문성과 유산의 다른 영역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아틀리에 앙투안 프로그램은 기계식 고급 시계 제작에 관해 더욱 자세히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2021년 5월 5일부터** online-booking.jaeger-lecoultre.com 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